

아카렌가 통신



제 64호

2020년 3월 26일

편집발행인 국제교류원 김소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부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에서도 2월 28일 비상사태 선언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운휴가 되어서인지, 외국인 관광객들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 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심심하리만치 무료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홋카이도의 자연유산

교류원 3인방의 오호츠크 지역탐방



◀ 홋카이도 관광PR 캐릭터 '쿠팡'

정체는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토끼과 동물인 '에조나키 우사기'입니다. 아바시리 지역의 쿠팡은 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과 교류원들은 1박 2일로 오호츠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회시간이나 지리시간에 들어봤던 '오호츠크해'를 직접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지인 '아바시리'는 삿포로에서 약 350km (자동차로 약 5시간 15분 소요)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정도의 거리라 하니, 꽤 멀리 이동하게 되는 셈이죠!

DAY1

신치토세 공항에서 비행기로 메만베츠 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갈대마냥 흔들려 아찔했습니다 @_@



무사히 도착하여, 기타하마역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된 식당처럼 생겼지만, 이곳은 기차가 실제로 정차하는 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당객차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로라' 쇄빙선을 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한 배는 어느덧 유빙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유빙이 바다의 푸른 빛을 머금어 반짝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넓다란 판자 모양으로 떠다니는 유빙을 보니 저 위에 한 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바시리와 시레토코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입고 유빙 위에 올라타거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보는 '유빙 워크'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방이 온통 유빙으로 둘러싸여, 이곳이 바다 한가운데인지, 눈으로 뒤덮인 설원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자, 광활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텐토잔 전망대로 이동하여, 유빙으로 덮인 오호츠크해와 아바시리 강, 호수가 공존하는 마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새하얀 수평선과 구름에 가린 시레토코의 산봉우리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아바시리 감옥박물관이었습니다. 방사형의 감옥은 한눈에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하는 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텐토잔 전망대 ▼아바시리 감옥박물관



▲아바시리역에서



▲아바시리의 상징 '니포포'



▲유빙의 천사 '클리오네'



◀오신코신 폭포 ▶시레토코 세계유산센터



DAY2

저는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면, 아침 일찍 동네를 한바퀴 둘러보곤 합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마을 풍경은 크리스마스 이브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마을을 걸어 아바시리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들른 샤리 국도휴게소에서는 '유빙의 천사'라 불리는 클리오네의 실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귀엽게 날갯짓하는 조그마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국도휴게소에는 연어 등, 생선을 가공한 지역 특산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조사슴 고기를 육포로 만든 제품도 있어 신기했습니다. 도전할 용기는 나지 않지만, 어떤 맛일지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우토로로 향하는 길에 '오신코신 폭포'에 들렀습니다. 왠지 '육신각산'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 아래에 가문비나무가 군생하는 곳'을 의미하는 아이누어라고 하네요. 청량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수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우토로에 위치한 시레토코 세계유산센터를 방문하여 동식물들에 관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전시판넬을 보니, 제 키는 고작 큰곰의 앉은키 정도인 것 같네요...

이번 여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와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속에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게 열만 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길 원하신다면, 홋카이도를 찾아주세요!

일본의 점심시간

두 나라의 점심시간 분위기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서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식사 중에도 업무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점심시간을 각자 따로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식보다는 편의점 즉석식품을 사먹거나,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모습도 이 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꽃가루의 계절!

일본은 봄에도 비교적 황사와 미세먼지 걱정이 덜한 반면, 2월 말부터 5월까지의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도처에 심어져 있는 삼나무의 꽃가루가 화분증을 유발하지만, 삼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는 이 증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대신, 4월 하순부터 자작나무 화분이 날리기 시작하는 홋카이도에는 '자작나무 화분증'이라는 지역 특유의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네요.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